



‘오월어머니들의 그림농사2’ 전시가 21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화해갤러리에서 열린다.

# “오월에 간혀있던 누구의 엄마 대신 잠시나마 내 삶 돌아볼 수 있었어요”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내 이름을 불러주니 고마워요. 나 한양님이에요!”  
92세 오월어머니 한양님 씨의 말이다. 현재 한양님 어머니는 몸이 아프셔서 미술수업에 나오시지 못하고 있다.

오월어머니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선보이는 ‘오월어머니 그림농사’가 시민들을 찾아온다.  
지난 4일 개막해 오는 21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화해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오월어머니들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이를 승화시킨 강인함과 위대함을 볼 수 있는 자리다. (오월어머니와의 대화는 16일 오후 2시 화해갤러리에서 펼쳐진다.) 전시를 기획하고 함께 그림을 그리고 스토리텔링 작업을 해온 주홍 작가(치유예술가)는 지난 2022년부터 매주 수요일 오월어머니집에서 5·18민주화운동으로 가족을 잃은 오월어머니들과 함께 그림을 그려왔다. 5·18민주화운동을 승리의 역사로 정리하고, 어머니들로 하여금 남은 인생을 자기 자신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이에 앞서 올해 5월 목포 전남교육정보원 늘봄카페에서 ‘오월어머니들의 그림농사2’라는 주제로 전시가 진행됐다. 지난해에는 200여 작품을 2023매 이홀에서 선보인 바 있다.  
전시 참여 어머니는 김순자, 고(故) 김순심, 김형미, 박수자, 고(故) 박화순, 고(故) 박순금, 윤삼례, 윤화숙, 이숙자, 이정덕, 장명희, 장상남, 정귀순, 최은자, 한양님 등 모두 15명이다. 이 가운데 세분의 어머니가 안타깝게 올해 돌아가셨다.  
주홍 작가는 “고인이 되셨지만 박화순, 박순금, 김순심 오월어머니의 그림과 이야기는 우리들 곁에 남아 있다”며 “수업을 하면서 서로 웃고, 울고, 춤을 췄던 기억은 가장 소중한 기억자산”이라고 했다.  
전시에는 모두 200여 작품이 내걸린다. 원색의 색감과 초등학생 그림처럼 순박하고 소박한 작품들은 잔잔한 울림을 준다.  
주홍 작가의 ‘오월어머니 그림농사’ 프로그램은 평소 ‘오월의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서 비롯됐다. 그는 지난 2008년 미

술치료를 주제로 한 박사과정 공부를 마쳤다.  
“당시 스토리텔링과 미술표현의 결합으로 통증을 치료하는 임상실현을 하고 그 효과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트라우마와 습관이 몸의 통증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80년 군부쿠데타의 학살을 겪은 광주시민들은 집단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후 트라우마센터에서 샌드아트를 매개로 치유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리고 어느 날 오월어머니 관장인 김형미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우리 어머니들과 함께 그림을 그려주시 않겠느냐”라는 제안에 그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내 수락을 했다고 한다.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은 추억을 쌓는 시간이었다. 한편으로 한 인간에 대한 생의 역사와 존엄을 알아가는 기회이기도 했다.  
어머니들은 트라우마로 인해 대부분 두통과 어깨 통증이 심했다. 수업을 하는 동안 주홍 작가는 친정어머니를 대하듯 마사지도 해드리며 정을 쌓아갔다.

‘오월어머니들의 그림농사2’ 21일까지 DJ센터 2층 화해갤러리 주홍 작가와 3년간 그림 공부... 16일 오월어머니 작가들과 대화



오월어머니들 그림 수업 장면. (주홍작가 제공)

그에 따르면 어머니들은 처음에는 ‘그림을 배운 적도 없는데 붓을 그려라고 하능가?’라며 시원찮은 반응이었다. 대부분 학교를 다니지 않은 어머니들에게 그림 공부는 ‘사지’로 다가왔을 거였다.  
그러나 막상 수업을 통해 한 편의 그림이 완성되고 나니 많이들 좋아하셨다. 무엇보다 그림을 매개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수확이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할 이야기가 많아지죠. 평상시에는 못했던 말들도 하게 되고 마음이 동화되면 노래도 하고 춤도 추게 됩니다. 어머니들은 항상 ‘오월 어머니’라는 테두리에 갇혀 있었고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만 불렸죠. 그런데 제가 한 번 한 번 ‘작가’로 불러들이니까 다들 흐뭇해하셨어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잠시나마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던 거지요.”  
예술의 치유 기능은 가슴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데 있다. 오월어머니들은 마음의 병으로 몸까지 아픈 분들이다. “어머니들은 5월이면 색깔 있는 옷도 못 입고 흰옷과 검은 옷만 입었다. 예쁜 꽃이 핀 지도 몰랐을 만큼 그런 아픔과 슬픔의 세월을 견뎌왔다”며 “이번 전시가 어머니들의 남은 자신에게 주는 작은 추억이 됐으면 한다”고 주홍 작가는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 소식을 듣고 보성 삼베명인 마광이찬식 선생이 직접 농사 지어 만든 삼베 종이를 보냈다. 그 종이를 오월어머니들은 옷을 짓고 좋아하는 무늬를 그렸다. 오월어머니들은 종이를 오려 구린 사람을 그리고 만세를 부르며 춤도 추고, 평화의 노래를 불렀다는 후문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한땀한땀 멋·솜씨 가득 ‘수공예품’ 만나요

광주디자인진흥원, 우수공예품 팝업스토어... 11~13일 ACC

문화적 감성과 개성이 깃든 수공예품을 만나볼 수 있는 팝업스토어가 열린다.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송진희)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플라자 브릿지에서 우수공예품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지역의 핸드메이드 공예상품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우수상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 기획됐으며 매년 봄, 가을 핫플레이스에서 열고 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울리공방’ (도자)을 비롯해 ‘수제뜨’ (섬유), ‘센시블’ (금속, 주얼리) 등 23개 수공예공방과 나주천연염색박물관이 참여한다. 이들 공방들은 도자, 섬유, 가죽, 레진, 금속, 목공예, 천연염색 분야의 악세서리, 생활용품, 잡화류 등을 판매한다.  
팝업스토어가 펼쳐지는 ACC 플라자 브릿지는 ACC와 동명동 카페거리가 연결돼 시민은 물론 외국인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특히 핸드메이드 상품들을 전시판매하는 팝업스토어는 ACC, 카페거리 등과 어우러져 MZ세대의 관심과 취향을 끌



지난해 6월 광주 첨단 시리단길에서 열린 팝업스토어 장면. (광주디자인진흥원 제공)

것으로 기대된다.  
송진희 광주디자인진흥원장은 “이번 행사는 지역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수공예공방과 나주천연염색박물관이 참여해 문화적 감성과 아름다움이 깃든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며 “멋과 솜씨가 다채롭게 조화를 이룬 핸드메이드 상품을 감상도 하고 구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디자인진흥원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세종이 꿈꾸던 세상 관현맹인 제도 재현

‘관현맹인전통예술단’ 초청공연 9일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

오는 9일은 훈민정음 창제를 기리는 ‘한글날’이다. 세종은 문자를 만들어 백성을 구휼하는 것은 물론, 시각장애인 악사들을 궁중에서 기용하는 ‘관현맹인 제도’를 통해 애민 정신을 실현했다.  
제578회 한글날을 맞아 세종의 관현맹인 제도를 재현한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이 특별 초청 공연을 펼친다. 오는 9일 오후 7시 국립남도국악원 대극장 진악당에서 펼쳐지는 ‘세종이 꿈꾸던 세상’이 바로 그것.  
백성과 함께 즐긴다는 의미를 투영한 ‘여민락’으로 막을 올린다. 이어 시대를 풍미한 황진이 고전시가 ‘청산리 벽계수야’를 모티브로 창작한 동명의 노래, 기악합주곡 ‘산조합주’ 등이 울려 퍼진다.



‘관현맹인전통예술단’ 공연 장면.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이날지 밴드가 연주하며 선곡적 인기를 끌었던 판소리 ‘범 내려온다’도 연주된다. 해금 독주곡 ‘소라개와 월식’, 남도민요 ‘동백타령’과 사계절을 노래하는 ‘신사철가’ 등이 관객들을 만난다.  
이외 지진 일상 속, 국악관현악의 아름다움으로 휴식을 선사하는 ‘산책’, 진도아리랑을 새로 운 분위기로 편곡한 ‘신명의아리랑’이 레퍼토리에 있다.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받아 재창단한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은 세종의 관현맹인 제

도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이들은 한국 전통음악의 예술혼을 전하고자 매년 100여 회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국악원 정순영 주무관은 “바른, 고른, 너른, 누리”라는 공연 부제는 온 누리에 정음(正音)을 널리 전파했던 세종의 정신을 함의한다”라며 “이외 공연 시작 시간 전부터는 ‘커피차’를 운영하고, ‘족자에 가운 쓰기’ 등 부대행사도 실시할 예정이다”고 했다.  
무료 공연.  
/최유빈 기자 rubi@kwangju.co.kr

## 국립목포대 박물관, 31일까지 ‘잊혀진 이야기, 역사가 되다’ 전

우리나라 최초 공식적인 이민은 1902년 12월 인천발 하와이행 갤릭호에 탄 한국인들이었다. 얼마 후 1905년까지 약 7000여 명의 노동자가 하와이로 이주했다.  
이역만리 외국의 땅에 발을 내디딘 이들의 삶은 처참했다. 사탕수수밭에서의 고된 노동도 노동이었지만 고국과는 다른 풍토와 기후, 음식, 문화는 적응은 고통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꿈을 잃지 않았다. 한인회와 군대를 조직하고 의연금 기부해 나서는 등 독립운동의 숨은 주역으로도 활동했다.  
하와이에는 뼈를 묻은 이민 1세대의 삶을 기록한 묘비가 있다. 국립장원대 박물관은 지난 2019~2024년 네 차례에 걸쳐 하와이 현지에서 이민 1세의 묘비를 조사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역사로 복원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왔다.  
하와이 이민 1세의 묘비로 본 이들의 삶의 궤적을 살펴보는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국립목포대 박물관은 오는 31일까지 ‘잊혀진 이야기, 역사가 되다’전을 진행중이다.  
각각의 다른 크기와 모양의 묘비는 저마다 다른



‘잊혀진 이야기, 역사가 되다’

삶을 살아왔던 한인 1세대의 역사를 담고 있다.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바람도 느껴진다.  
전시실에는 안중근 의사를 위한 하와이 동포 성금 모금과 관련 안중근 의사 유묵도 함께 전시돼 당시 동포들의 독립에 대한 의지도 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국립대학 육성지원사업 중 남도 학술교류사업 일환으로 기획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립발레단 ‘코펠리아’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 어른들은 동심으로, 아이들은 환상 속 세계로

광주시립발레단 정기공연 ‘코펠리아’ ... 18~19일 광주예술의전당

희극 발레 대표작 중 하나인 ‘코펠리아’는 19세기 후반 낭만 발레의 특징을 잘 드러낸다. 유쾌한 내용과 불거리들은 어른들을 동심으로, 아이들을 환상 속 세계로 인도한다.  
광주시립발레단(예술감독 박경숙)이 제138회 정기공연 ‘코펠리아’를 오는 18~19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선보인다. 18일 오후 7시 30분, 19일 오후 3시, 7시 30분.  
작품은 연금술을 즐기던 코펠리우스가 인형 코펠리아를 만든 뒤, 마을 사람들에게 이를 살아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들면서 벌어지는 내용이다. 아지자기한 프랑스 발레의 묘미를 느낄 수 있으며 코펠리우스와 스와닐다, 프란츠의 마임 씬은 보는 재미를 더한다.  
광주 출신의 박승유 지휘자가 지휘봉을 잡는다.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학·석사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박 지휘자는 2015년 런던 국제 지휘

콩쿠르에서 우승, 2013년 오스트리아 그라츠 국제 지휘 콩쿠르에서 준우승했으며 현재 양주시립교향악단을 이끌고 있다.  
아울러 광주전남에서 활동 중인 오케스트라 카메라타전남이 협연할 예정이다.  
폴란드 민속 무용 ‘마주르카’와 헝가리 민속무 ‘차르다시’를 역사상 최초로 발레에 등장시킨 작품이라는 점, 작품에 사용된 디베르티스망(여흥을 고조시킨 장면)이 각국 민속무용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은 ‘코펠리아’의 의미를 더한다.  
박경숙 예술감독은 “남녀노소 온 가족이 즐기기에 좋은 이번 공연은 따뜻하고 유쾌한 이야기를 소재 삼아 관객들에게 즐거움,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며 “조연 후 27년 만에 전막으로 무대화한 이번 야심작이 아름다운 울림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R석 3만 원, A석 1만 원, 티켓링크 예매.  
/최유빈 기자 rubi@kwangju.co.kr